

제 1 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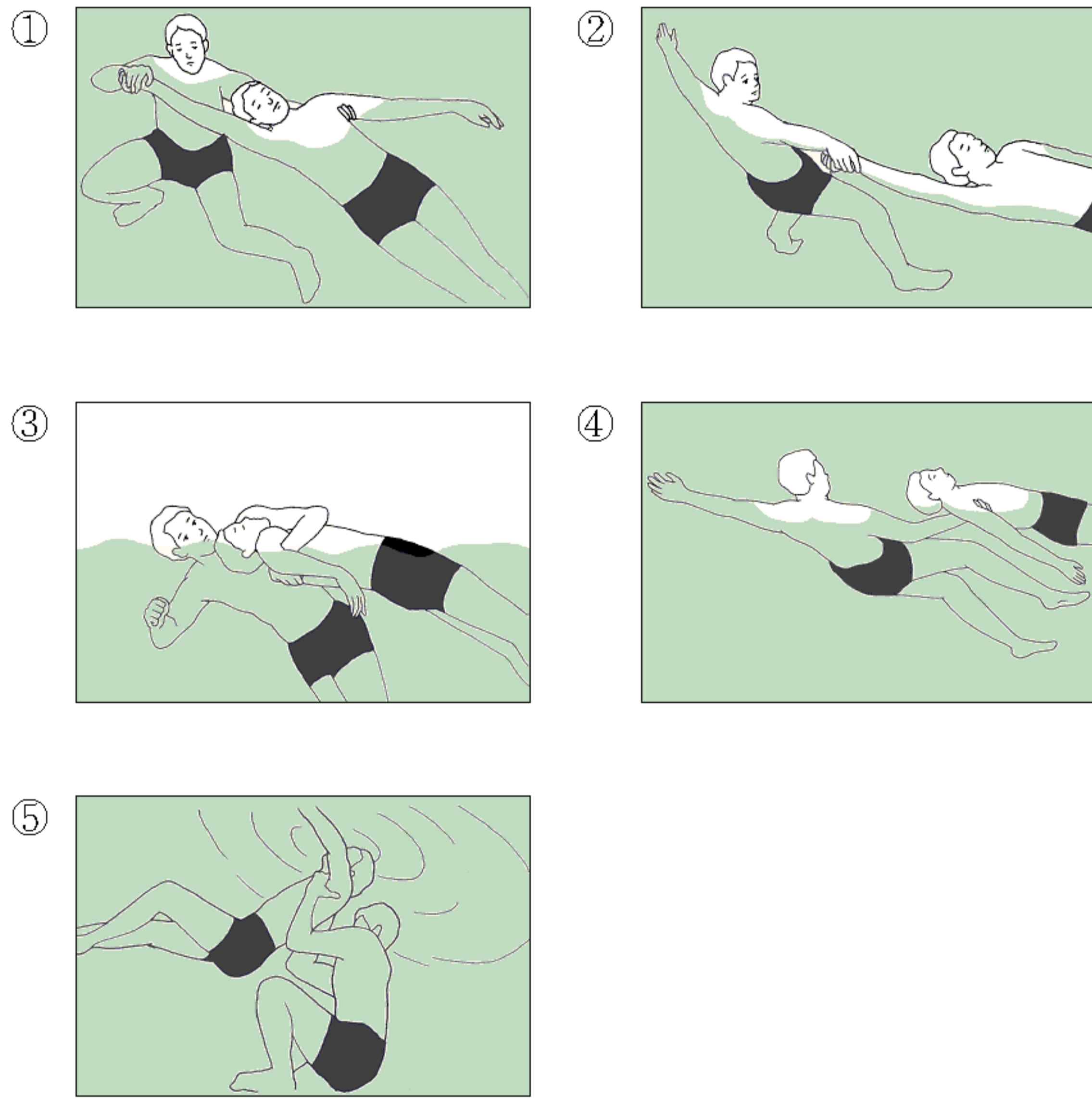
언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이 강의에서 활용한 그림 자료가 아닌 것은? [1점]



2. (물음) 이 뉴스를 들은 청취자가 보도 내용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의문은?

- ① 새 은행권의 규격과 도안은 어떻게 될까?
- ② 왜 도안 인물을 교체하지 않기로 하였을까?
- ③ 왜 오천 원권만을 먼저 발행하기로 하였을까?
- ④ 왜 최근 들어 위폐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을까?
- ⑤ 위폐 방지를 위해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3. (물음) 이 상황에서 남학생이 했을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첫째 답변 ② 둘째 답변 ③ 셋째 답변
- ④ 넷째 답변 ⑤ 다섯째 답변

4. (물음) 학생이 발표에서 강조하고자 한 것은?

- ① 초가집에 사용된 재료의 다양성
- ② 초가집에 숨어 있는 수학적 원리
- ③ 초가집에서 발견되는 예술적 가치
- ④ 초가집에 담겨 있는 선조들의 지혜
- ⑤ 초가집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

[5~6] 들려 주는 내용을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5. (물음) 청취자의 반응 중, 대담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나는 낮잠을 많이 자서 불면증에 걸렸구나.
- ② 사람마다 필요한 수면 시간이 다를 수 있겠구나.
- ③ 잠을 적게 자는 것보다 불규칙하게 자는 것이 더 해롭구나.
- ④ 요즘 내가 멍하고 예민한 게 수면 부족과도 관련이 있겠구나.
- ⑤ 몸의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 주말에도 잠을 적당히 자야겠구나.

6. (물음)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청취자의 질문을 바탕으로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 ② 전문가와는 다른 관점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③ 전문가의 답변을 요약하면서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 ④ 진행자 개인의 궁금증을 중심으로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 ⑤ 전문가의 대답에 설명을 덧붙여 청취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7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7. '우리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고자 할 때, <보기>에 따라 생성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사물 B가 사물 A에 대해 갖는 의미를 고려한다.
 ◦ 두 사물 A와 B의 관계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한다.

A - B	우리 사회가 안정되고 건실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부문의 기초부터 튼튼히 해야 한다.	
↓		
도로 - 중앙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하고, 정책 집행에서 일정한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①
책상 - 책상 다리	정책을 펼 때에도 경제뿐 아니라 사회, 복지, 교육, 여성 등의 부문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퍼즐 - 퍼즐 조각	사회 구성원은 저마다 다른 능력과 개성을 지니고 있지만,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배척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③
담 - 벽돌	또한 이해 관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여러 집단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④
꽃밭 - 꽃	왜냐하면 그들은 각자가 아름다운 존재이며, 함께 모였을 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⑤

8. 모둠 활동을 통해 '우리 고장을 빛낸 인물을 소개하는 글 쓰기'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과제 수행을 위해 논의한 내용 중, <보기>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1점]

<보 기>
 ◦ 제목: ○○○의 생각을 찾아서
 ◦ 독자: 우리 고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예상 독자로 설정할 것.
 ◦ 형식: 관광 안내 소책자에 실을 글로 작성할 것.
 ◦ 내용: 인물의 인간적인 면모가 잘 드러나게 구성할 것.
 ◦ 표현: 내용을 흥미롭게 진술하되 사실을 왜곡하지 말 것.
 ◦ 자료: 시각적 자료를 첨부할 것.

- ① 인물의 일화와 관련 있는 장소를 소개하여 인물의 자취를 느낄 수 있게 해야겠어.
- ② 글의 초점인 생각의 문화재적 가치를 밝히고, 보존 현황도 자세하게 소개해야겠어.
- ③ 인물의 활동 내용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진이나 삽화 등을 활용해야겠어.
- ④ 우리 고장 사람 중에 다른 고장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봐야겠어.
- ⑤ 인물에 관련된 미담이나 난관을 극복한 내용이 포함된 이야기가 있다면 감동적으로 구성해야겠어.

9. '의료 복지 정책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고자 한다. <보기>의 (가)~(다)를 모두 활용하여 이끌어 낼 수 있는 논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4년 (나) 정부가 시급히 시행해야 할 정책은?

세제 혜택을 통한 중산층 지원 10.4%
 노사 안정을 통한 기업 활동 보호 21.5%
 기업 경제 규제 완화 32.4%
 빈곤층 지원, 복지 서비스 확대 33.4%
 기타 2.3%

- △△신문 기사에서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 -

(다) 암, 백혈병 등 중증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커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다. 이들 환자는 입원 치료 시 진료비의 20%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과목이 많아 환자의 실제 의료비 부담률이 50%를 넘고 있다.
 - ○○신문 기사에서 -

- ① 계층 간 의료비 지출의 격차가 커지는 현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 ② 저소득층 중증 질환자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 ③ 계층 간 의료비 지출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빈곤층에게 세계 혜택을 주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④ 소득 수준에 따른 적정 의료비 지출액을 산정하여 보험 적용 진료 과목의 범위를 확정할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⑤ 특정 계층의 의료비 지출 비용의 증가가 중증 질환자에 대한 의료 복지 서비스 확대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

10. 일상 생활의 소재를 활용하여 쓴 짧은 글로,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보 기>
 ◦ 선택된 제재를 1인칭 서술자로 설정한다.
 ◦ 적절한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한다.
 ◦ 상황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전시킨다.

- ① 지우개: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얼굴이 뜨거워지는 고통이 따르지만, 내 실수와 잘못을 덮어 주는 것에 고마움을 느낀다.
- ② 수건: 햇빛이 나의 온몸에 스며든다. 바람이 불어 산들산들 흔들린다. 싱그러운 초여름의 기운을 맛보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 ③ 비누: 흐르는 물에 몸을 적신다. 부글부글 거품이 되어 누군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살아가지만, 정작 작아져 가는 나를 돌아보지 못한다.

- ④ 분필: 오늘도 어제와 같이 칠판 위에 나의 흔적을 남긴다. 때로는 딱딱 깨지고 부서지는 아픔도 있지만, 앞의 기쁨을 전해 주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 ⑤ 축구공: 드넓은 대지에서 뛰고 달리고 구르고 있다. 데굴데굴 굴러서 그물에 가 닿으면, 나를 보고 외치는 환호성에 들뜨면서도 다른 쪽의 따가운 시선에 부담을 느낀다.

11. 다음은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한 감상문의 초고이다. 고쳐 쓰기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미술관에 다녀와서



지난 주말 '도미에(Daumier) 특별전'에 다녀왔다. 인터넷에서 미리 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림을 보니 ㉠ **상상했던 것보다 크기가 훨씬 더 컸고 세밀한 부분과 질감까지 느낄 수 있어 무척 신기했다.**

전시작 가운데 인상깊게 본 것은 도미에의 특징적인 화풍이 잘 드러나 있다는 <삼등 열차>라는 그림이었다. 이 그림은 열차에 탑승한 서민들을 그린 것인데, 그림 속 사람들은 모두 같은 모습, 같은 표정이었다. 이웃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무관심하다는 얼굴로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마치 국어 시간에 배운 어느 시의 풍경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 **떠올라졌다.** 아마 화가는 그림을 통해 삶에 찌들고 소외된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았다. 실제로 이 그림을 그릴 당시 화가는 생활고로 인해 절망적인 상태에 처해 있었다고 한다.

㉢ **도미에(Daumier, 1808~1879)는 19세기 프랑스의 정치와 사회를 풍자한 시사 만화가이자 화가이다. 그는 명암의 대조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상세히 묘사하는, 그 당시로서는 이색적인 화풍을 보였다고 한다.**

㉣ **숙제라서 억지로 한 느낌이 있지만 어쨌든 뜻깊은 경험이었고 앞으로 이런 체험을 자주 해야겠다.**

- ① ㉠: 제목이 너무 포괄적이므로 '도미에 특별전 - <삼등 열차>를 관람하고' 정도로 바꾸는 것이 좋겠어.
- ② ㉡: 문맥을 고려해서 '상상했던 것만큼'으로 고치는 것이 좋겠어.
- ③ ㉢: 어법에 맞지 않으므로 '떠올랐다.'로 고치는 것이 맞겠어.
- ④ ㉣: 화가에 대한 소개가 앞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앞 문단에 화가의 화풍이 언급되었으니, 앞 문단과 순서를 바꾸는 것이 좋겠어.
- ⑤ ㉣: 상투적인 표현은 삭제하고, 감상 소감을 덧붙이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어.

12. <가>와 <나>는 '자원 위기와 해양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협동 작문을 하는 과정에서 두 학생이 작성한 개요이다. <나>를 활용하며 <가>를 수정·보완하기 위해 제시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나>
㉠ 주제문: 미래 사회와 해양 개발 I. 서론: 해양 개발의 중요성 II. 본론 ㉡ 1. 해양 개발의 현황 2. 해양 개발의 필요성 가. 청정 대체 에너지원 확보 ㉢ 나. 해양 개발을 둘러싼 국제 분쟁 ㉣ 3. 해양 개발의 대안 가. 해양 자원과 개발 방향 나. 지속 가능한 해양 개발을 위한 과제 III. 결론: 해양 개발의 의의와 전망	㉠ 주제문: 지속 가능한 해양 개발로 자원 위기 시대에 대비하자. 1. 필요성 ㉡ 가. 해양 오염 방지 나. 관련 법안 마련 ㉢ 2. 사례 가. 동해 가스 유전 개발 나. 해저 광물질 발견 3. 대상과 방안 ㉣ ㉠ 가. 에너지 자원과 광물 자원 나. 해수 자원과 생물 자원 4. 문제점과 대책 가. 무분별한 개발 나. 해양 자원 고갈

- ① ㉠은 관점과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로 대체하자.
- ② ㉡을 구체화하기 위해 하위 항목으로 '해양 개발의 실태'와 ㉢를 추가하자.
- ③ ㉢은 글의 흐름상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로 대체하자.
- ④ ㉣은 하위 항목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해양 개발의 방향과 과제'로 고치자.
- ⑤ ㉣의 내용으로 ㉣을 활용하고 구체적인 개발 방향도 함께 제시하자.

13. 국어 수업 시간에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요'의 쓰임에 대해 알아보았다. 탐구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선생님, 어디로 갈까요?
철수야, 어디로 갈까?
- 선생님, 빨리요.
철수야, 빨리.
- 더우면요 창문을 열까요?
더우면 창문을 열까?
- 마음은요 더없이 좋지요.
마음은 더없이 좋지.

- ① '요'가 빠져도 문장이 성립하는구나.
- ② 생략되더라도 존재 여부만 달라지는구나.
- ③ '요'가 붙어도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는구나.
- ④ 종결 어미 뒤에 쓰일 때만 듣는 사람을 존대하는구나.
- ⑤ 주어나 부사어, 연결 어미나 종결 어미 뒤에 나타나는구나.

14. <보기>는 국어사전 편찬을 위하여 언어 자료를 컴퓨터로 처리한 작업 결과의 일부이다. <보기>의 예를 바탕으로 <국어사전>의 ㉔에 뜻풀이를 추가할 때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

그들도 서로 약혼한 소문을 {듣고} 있었다.
 그는 내 말을 완전히 농담으로 {듣고} 있었다.
 사냥 갔다가 그만 혼났다는 이야기는 석림이도 {듣고} 왔었다.
 나무 장수는 여편네의 목소리를 {듣고} “여보 사람이
 조카 만주 갔다 온 이야기를 수천 양반이 자세히 {듣고} 아마 직접
 새 소리, 벌레 소리도 {듣고} 앞 강을 스쳐오는
 바보같이 그까짓 소리를 곱잡게 {듣고} 그래.
 :

<국어사전>

듣다 [-따] [들어, 들으니, 듣는[듣-]] ㉓

㉑ 감각 기관을 통해 소리를 알아차리다.
 ㉒ 일정한 내용을 가진 말을 전달받다.
 ㉔ _____

- ① 주로 약 따위가 효험을 나타내다.
- ②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 그렇게 하다.
- ③ 기계나 장치 따위가 정상적으로 움직인다.
- ④ 어떤 것을 무엇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다.
- ⑤ 다른 사람의 말이나 소리에 스스로 귀 기울이다.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나) 밤의 식료품 가게
 케케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 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북어들,
 북어들의 일 개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나는 죽음이 꿰뚫은 ㉑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한 껍의 ㉒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빙어리를 말한 셈이다.
 말라붙고 짜부라진 ㉓ 눈,
 북어들의 뺨뺨한 ㉔ 지느러미.
 막대기 같은 생각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붙잡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느닷없이
 북어들이 커다랗게 ㉕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귀가 멍멍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 최승호, 「북어(北魚)」 -

(다)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듯하리라.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양구비 끓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간간이 잔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간다.

예 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흑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 오장환, 「고향 앞에서」 -

15.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②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 일상적 삶을 반성하고 있다.
- ③ 자연에서 발견한 가치를 통해 인생의 소중함을 노래하고 있다.
- ④ 시적 화자를 시의 표면에 직접 내세워 시인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지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16. 시인이 시를 창작하면서 시상을 떠올린 과정을 중심으로 (가)를 감상한다고 할 때,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ㄱ. '청무우밭'은 '바다'의 색채와 형태에서 연상된 걸 거야.
 ㄴ. '물결'과 맞서고 있는 '나비'의 모습에서 '공주'의 속성을 떠올렸을 거야.
 ㄷ. '꽃이 피지 않아서'는 '물결'이 일지 않는 '바다'의 모습에서 연상되었을 거야.
 ㄹ.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는 '나비 허리'와 '물결'을 연관지어 연상한 공감각적 심상일 거야.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7. (나)의 주제 의식과 관련지어 볼 때, 성격이 다른 하나는?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18. (다)에 사용된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룻가', '주막', '산기슭' 등의 공간을 활용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행인', '주인집 늙은이', '장꾼들'과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동일하다.
 ③ '강바람'과 '설레는 바람'은 고향에 대한 시적 화자의 심리를 담아내는 매개체이다.
 ④ '공연히', '아직도', '혹여나' 등 부사어를 통해 시적 화자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첫 행과 마지막 행의 '내음새'는 고향에 대한 기억을 그리움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 작품의 내용과 정서를 고려할 때, (가)의 '나비'와 (다)의 화자가 나누었음직한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의 화자: 우리 둘은 각자 가고 싶은 곳이 있군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네요.
 ② (가)의 '나비': 제가 고통스러운 것은 그 곳이 매혹적이면서도 치명적이기 때문이지요.
 ③ (다)의 화자: 당신은 이미 그 곳에 가 보지 않았던가요? 저는 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렸습니다.
 ④ (가)의 '나비': 저는 너무 순진하게 덤벼들었다가 큰 상처만 입었습니다.
 ⑤ (다)의 화자: 소망하면서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기에 우리들은 슬픈가 봅니다.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많은 성인들은 청소년 문화가 하위 문화의 특성을 띠고 있으며, 성인 문화에 비해 미숙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성인 문화가 생산적 노동 관습에 순응하고 책임감을 갖는 데 비해, 청소년 문화는 소비에 열중하고 쾌락 추구적이며 기존 가치를 거부하려는 무책임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들은 청소년을 경계에 놓인 존재이자 '정상적인' 문화로 계도해 가야 할 대상이라고 여긴다. 반면 이러한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청소년이 그 나름의 원칙과 질서에 따라 사는 독립적인 존재이므로 그들의 문화도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소년 문화를 ㉠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러한 견해 차이는 청소년이 과연 고유한 문화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사회가 받아들일 만한 가치 있는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로 다른 전망에서 비롯된다. 현상적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독자성을 말하기는 아직 이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 청소년의 행동 양식 속에는 그들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 내려는 의미 있는 시도들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길거리 문화'이다.

청소년의 길거리 문화는 청소년이 길거리에서 누리는 생활을 근간으로 한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많은 시간을 가정과 학교에서 보내지만 여가 시간은 길거리라는 공간 속에서 걷고, 만나고, 놀고, 소비하며 보낸다. 이때 '길거리'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나 차량이 다니는 거리만이 아니라 광장이나 공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게임을 할 수 있는 곳, 각종 공연이나 문화 예술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을 포함하는 공간 개념으로 사용된다.

학업 부담 때문에 여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청소년들은 방과 후나 주말, 시험이 끝난 날 등 여유 있는 시간을 잡아 친구들과 함께 길거리로 나선다. 하지만 어떤 단일한 목적이 그들의 행위를 결정짓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패스트푸드점, PC방, 노래방, 공연장 같은 곳을 전전하는 경우에도 그들의 행위는 특별한 목적이 없어 보인다. 만나서 빈둥거리다가 물건을 구경하고, 웃고 떠들다가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사 먹고, 다시 길거리로 나선다.

청소년들은 왜 이렇게 특별한 목적 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는 것일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들이 길거리로 나서는 것은 학교나 가정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가 아닐까? 그들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길거리에서 비슷한 나이, 비슷한 차림새의 또래들이 모이고 흠어지는 가운데, 그들은 일시적인 해방감을 느끼고 나아가 자신들만의 연대 의식과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경험이 바람직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길거리 문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들의 유대 관계가 아직까지는 일시적이라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여전히 그들의 문화는 '길거리'라는 상황과 결합되어 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청소년들은 길

거리 문화를 소비 문화로만 받아들이게 된다. 청소년의 길거리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계도나 관리가 아닌 지지와 여건 조성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20. 청소년과 관련된 현재의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청소년은 학업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 ② 청소년 문화는 또래 집단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 ③ 청소년을 위한 문화 공연장이 부족한 실정이다.
- ④ '길거리'는 소비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⑤ 청소년 문화를 계도 대상으로 보는 성인이 많다.

21. 밑줄 친 단어의 문맥적 의미가 ㉠과 유사한 것은? [1점]

- ① 잠시 일을 놓고 쉬는 중이다.
- ② 중매쟁이를 놓아 혼인을 주선했다.
- ③ 건강을 위해 밥에 콩을 놓아 먹는다.
- ④ 정신을 놓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 ⑤ 뉘뉘이만 놓고 보면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다.

22. ㉡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진술은? [1점]

- ① 문화는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
- ② 문화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다.
- ③ 문화는 세대를 이어 계승된다.
- ④ 문화는 사회 정책의 산물이다.
- ⑤ 문화는 지속적으로 축적된다.

23. 길거리 문화에 대한 반응 중, 위 글의 논지와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 ① 길거리 문화는 어른들도 겪을 수 있는 욕망의 표출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성인들도 향유할 수 있는 길거리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 ② 길거리 문화는 어른들의 문화를 모방하는 측면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어른들의 퇴폐 향락 문화에 물들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 ③ 청소년 문화는 잠재력과 창의성을 지닌 문화입니다. 미래의 문화를 위해서도 무엇이 그들을 길거리로 이끌어 내고, 그들이 길거리에서 무엇을 느끼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 ④ 길거리 문화라는 불분명한 현상을 인정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문화라는 불완전한 문화를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청소년 길거리 문화는 전체 사회의 소비 문화라는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 ⑤ 우리 청소년들은 여가 시간에도 텔레비전 시청, 인터넷 이용 외에는 마땅히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길거리 문화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백호산군이 왈,

“대개 만물의 경중을 알고자 할진대 저울만 같음이 없고, 송사의 곡직을 알진대 양쪽의 말을 들음만 같음이 없나니, 한 쪽의 말만 듣고 선불선(善不善)을 가며이 판결치 못할지라. 소진*의 말로써 진나라를 배반함이 어찌 옳다 하며 장의*의 말로써 진나라를 섬김이 어찌 그르다 하리오. 소장(訴狀) 양쪽의 말을 같이 들은 연후에야 종횡을 쾌히 결단하리니, 다람쥐는 우선 옥으로 내리고 서대쥐를 즉각 잡아 와서 상대한 연후에 가히 밝게 분변하리라.”

하고, 오소리와 너구리 두 형졸로 하여금 서대쥐를 빨리 잡아 대령하라 분부하니 두 짐승이 명을 듣고 나올새 오소리가 너구리더러 일러 왈,

“내 들으니 서대쥐 재물이 많으므로 심히 교만하매 우리 매양 괴악히 알아 버르던 바이러니, 오늘 우리에게 걸렸는 지라. 이놈을 잡아 우리를 팔시하던 일을 분풀이하고 또 소송당한 쪽 전례는 위에서도 아는 바라. 수백 냥이 아니면 결단코 놓지 말자.”

하고 둘이 서로 약속을 정하고, 호호탕탕한 기분을 발호하고 예기는 맹렬하여 바로 구궁산 팔괘동에 이르러 토굴 밖에서 소리 높여 부르며 가로되,

“서대쥐 고소를 당함에 백호산군의 명을 받아 패자(牌子)*를 가지고 잡으러 왔나니 서대쥐는 빨리 나오고 지체 말라.” 독촉이 성화 같은지라.

비복들이 이 말을 듣고 혼백이 흩어져 버리는 듯 놀라서 급급히 들어가서 서대쥐께 연유를 고할새 서대쥐 호흡이 급해지고 땀이 배어 등을 적시는지라. 모든 쥐들이 이를 보고 눈을 둥글고 두 귀 발록발록하여 허둥지둥하거늘 서대쥐 왈,

“너희들은 놀라지 말라. 옛말에 일렀으되 칼이 비록 비수라도 죄 없는 사람은 해치지 못한다 하였으니 우리 본디 죄를 범한 바 없는지라 무엇이 두려우리오.”

인하여 자손과 노복쥐를 데리고 토굴 밖으로 나오니 오소리와 너구리가 서대쥐 나옴을 보고 더욱 의기양양 하는지라. 서대쥐 오소리를 보고 혼연히 웃어 가로되,

“오 별감은 그 사이 평안하셨느뇨. 나는 층암절벽 한 곳에 토굴을 의지하고 그대는 천봉만학 절승처에 산군을 모시니 유현(幽顯)*의 길이 다른지라. 마음은 항상 그윽하나 승안접사(承顔接事)*를 일차 부득하더니 오늘 관고(官故)로 말미암아 누추한 곳에 왕림하여 의외로 청안(淸眼)을 대하니 패자에차는 서서히 수작하려니와 일배 박주(薄酒)*를 잠깐 나누기를 바라노니 허락함이 어떠리오.”

오소리는 본디 마음이 순한지라, 서대쥐의 대접이 심히 관후함을 보고 처음에 발발하던 마음이 춘산에 눈 녹듯이 스러지는지라. 서대쥐더러 왈,

“우리 백호산군의 명을 받아 서대쥐와 다람쥐로 더불어 재판코자 하여 빨리 잡아오라 분부 지엄하니 빨리 행함이 옳거늘 어찌 조금이나 지체하리오.”

장자취 왈,

“오 별감 말씀이 옳은지라, 어찌 두 번 청함이 있으리오마는 성인도 권도(權道)함이 있나니 원컨대 오 별감은 두 번 살피라.”

모든 쥐들이 일시에 간청하며 서대취는 오소리의 손을 잡고 장자취는 너구리를 붙들고 들어가기를 청하니, 너구리는 본래 음흉한 짐승이라 심중에 생각하되,

‘만일 들어가는 경우에는 죄인 다루는 데 거북할 테니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리고 기왕 뇌물을 받으려면 툭툭히 실속을 차려야 한다.’

하며 소매를 떨치고 거짓 노왈,

“관령은 지엄하고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물어 가는데 어느 때에 술 마시고 놀며 희롱하리오. 관령이 엄한 줄 알지 못하고 다만 일배 박주에 팔려 형장(刑杖)이 이 몸에 돌아오는 것은 생각지 못하는가. 나는 굴 밖에 있으리니 빨리 다녀오라.”

하고 말을 마치며 나와 수풀 사이에 앉아 종시 들어가지 않는지라. 서대취 이 말을 듣고 오소리더러 너구리를 청하라 권하매, 오소리 나아가 너구리를 이끌어 가로되,

“서대취 이처럼 간청하거늘 어찌 차마 거절하리오. 잠깐 들어가 동정을 봄이 좋도다.”

너구리 가로되,

“그러면 ㉠ 전례는 어찌한다 하느뇨.”

오소리가 너구리 귀에 대고 대강 이르니, 너구리 그제야 오소리와 더불어 가니 화려한 누각이 굉장한지라. 전각에 올라 서대취와 더불어 좌정 후에 다람쥐 송사한 일을 두어 마디 수작하더니 얼마 안 되어 안으로서 주찬이 나오는지라. 잔을 잡아 서로 권할새 수십 배를 지난 후에, 장자취 화각(畫角) 모반에 황금 스무 냥을 담아 서대취 앞에 드리니, 서대취 황금을 가져 오소리 앞으로 밀어 놓으며 가로되,

“이것이 대접하는 예는 아니나 서로 정을 표할 것이 없으매 마음에 심히 무정한고로 소소한 물건으로 옛정을 표하나니 두 분 별감은 혐의치 말고 나의 적은 정성을 거두소서.”

오소리 웃으며 왈,

“서대취의 관대함이 감사하던 중 이같이 후의를 끼치시니 받는 것이 온당치 못하오나 감히 물리치지 못할지라. 그러나 서대취는 조금도 염려치 말고 다람쥐와 결승케 하면 내일 재판할 때에 우리 둘이 집행(執杖)할 터이오니 어찌 다람쥐를 중죄(重罪)하여 서대취의 분풀이를 못하리오.”

하고 인하여 서대취와 더불어 떠나더라.

- 작자 미상, 「서동지전(鼠同知傳)」 -

- * 소진, 장의: 중국 전국시대에 활약한 달변의 정치가.
- * 궤자: 지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주는 글.
- * 유현: 사람의 눈에 띄지 아니하는 곳과 눈에 띄는 곳.
- * 승안점사: 웃어른을 만나 뵙는 일.
- * 박주: 맛이 좋지 못한 술.

2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인물이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회상 형식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다.
- ④ 섬세하고 치밀한 묘사로 비장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⑤ 사건 전개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25. 작중 인물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대취: 두 형졸에 대한 나의 대접이 소홀하여 부끄럽다.
- ② 백호산군: 다람쥐 말만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③ 너구리: 이 기회에 서대취에게 돈을 뜯어내야겠다.
- ④ 장자취: 형편에 따라 원칙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 ⑤ 오소리: 평소 서대취의 행실이 불만스러웠다.

26. ㉠에 내포된 의미로 알맞은 것은? [1점]

- ① 죄를 자백하겠다고 하는가?
- ② 음식은 준비했다고 하는가?
- ③ 재물을 바치겠다고 하는가?
- ④ 재판정에 나가겠다고 하는가?
- ⑤ 교만함을 사죄하겠다고 하는가?

27. 위 글을 읽고 나서 보인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진실성 없이 겉과 속이 다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두었군.
- ② 관(官)의 힘에 기대어 위세를 부리는 인물을 풍자하고 있군.
- ③ 인정세태를 그리기 위해서 동물을 주인공으로 삼는 기법을 사용했군.
- ④ 돈의 힘을 알고서 능란하게 쓸 줄 아는 인물의 처세를 보여주고 있군.
- ⑤ 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백성을 괴롭히는 재판 제도의 불합리성을 비판하고 있군.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분청사기는 전통 도자 양식 중 하나로서 점토[청자토]로 만든 형상 위에 화장토[백토]를 칠한 전후에 바탕을 장식하고 유약을 발라 구워 낸 그릇을 말한다. 고려 말 퇴락해 가던 상감청자의 뒤를 이어 등장한 분청사기는 조선 중기 이전까지 널리 쓰였다. 우리나라 도자기 중에서는 가장 순박하고 서민적이며, 일상의 생활 용기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예술적 조형미도 매우 뛰어났다. ㉠

퇴락해 가는 예술로부터 태어나 실용적 목적에서 사용되었던 분청사기는 어떻게 해서 예술성을 얻게 되었을까? ㉡ 분청사기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해당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고려 말에 이르기까지는 국가에서 도자의 생산과 유통을 관장하였다. 서남해안 일부 지역에 설치되었던 관요(官窯)에서는 국가의 강력한 보호와 규제 속에 상감청자 등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 도자들은 왕실과 사원, 귀족층을 위한 제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품질이 일정했다. 국가의 철저한 감독 아래 도공들은 독점적 생산자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신분의 구속과 강력한 규제를 받아야만 했다. ㉢

14세기 후반 고려 왕조가 쇠운을 맞게 되자, 도공들은 정치적 혼란과 왜구의 침입을 피해 각지로 흩어져 살길을 찾게 되었다. ㉣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민간 가마터인 민요(民窯)가 만들어졌다. 민요의 등장은 관요에서 만들어 내던 상감청자가 근본적으로 쇠퇴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서민층으로까지 확대된 도자기 수요에 부응하여 저렴한 생활 용기들을 제작하는 생산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으로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개발을 크게 기대할 수 없었고, 이전에 사용하던 재료들을 쉽게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품의 질이 일정하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조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숙련된 제조 기술을 보유한 도공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질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 냈으며, 차츰 전통적인 도자 기술에 구애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분장 기법들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 새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상감청자의 전통 위에서 있기는 했지만, 더 이상 상감청자와는 같지 않았다. 분청사기라는 새로운 전통 도자 양식이 탄생한 것이다.

각 지방에서 ㉦ 이름을 얻은 분청사기들은 왕실이나 관에서 사용되기도 했다. 뛰어난 제품들은 토산 공물로서 중앙에 진상되었다. 그런데 상당수가 품질이 떨어지거나 중간에서 착복되어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자, 세종 3년에 이르러 진상하는 분청사기 제품의 밑면에 ㉧ 장명(匠名)을 쓰게 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의 창작이라는 개념이 아직 존재하지 않던 시대였지만, 이 조치는 도자 생산의 질 관리를 가능하게 하였고, 도공들에게 두터운 전통의 경험 위에 그들 나름의 독특한 장인 정신을 발휘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분청사기는 기능적이면서도 심미적인 조형미를 갖춘 예술 형식으로 발전해 갔다.

28. 위 글에서 언급한 분청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공예품으로서의 조형미가 뛰어났다.
- ② 여러 지역의 민간 가마터에서 만들어졌다.
- ③ 품질 관리를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었다.
- ④ 다양한 신분과 계층에서 사용한 생활 공예품이었다.
- ⑤ 상감청자를 계승하였지만 그것보다 뛰어난 기법을 획득했다.

29. 위 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가설을 설정한 다음, 여러 관점에서 의견들을 검토하였다.
- ② 자신의 관점을 제시한 다음,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였다.
- ③ 핵심적 문제를 제시한 다음, 역사적 고찰을 통해 해명하였다.
- ④ 비교되는 두 대상을 제시한 다음, 상반된 관점에서 각각을 평가하였다.
- ⑤ 통념을 비판한 다음,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였다.

30. ㉠~㉤에 앞 문장의 내용을 보충하는 뒷받침 문장을 추가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싹 게 비지떡이라고, 뛰어난 작품은 숙련된 제조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었다.
- ② ㉡: 분청사기가 화룡점정(畵龍點睛)의 놀라운 예술성을 보여 줄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하다.
- ③ ㉢: 국가의 간섭이 그들에게는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 ④ ㉣: 도공들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듯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다.
- ⑤ ㉤: 그들은 절치부심(切齒腐心)하면서 새로운 도자 기술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31. ㉦의 문맥적 의미와 거리가 먼 것은? [1점]

- ① 이 고장은 도자기로 이름이 난 곳이다.
- ② 그 식당은 산채비빔밥으로 이름을 날렸다.
- ③ 그는 어릴 적 바둑 신동으로 이름이 높았다.
- ④ 농산물에 지역의 이름을 붙이자 판매량이 늘어났다.
- ⑤ 이번 대회에는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선수들이 참여한다.

32. ㉧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개인의 창작 욕구를 위축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② 분청사기의 유통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 ③ 국가에서 공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 ④ 도공들의 도자 생산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는 계기였다.
- ⑤ 도자의 품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한 바탕이었다.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날 널리 회자되고 있는 공론장(公論場)이라는 용어는 공적 문제에 대한 개인의 의견이 공적 영역으로 확장되는 공개된 담론의 장(場)을 말한다. 즉 사회적 의제(議題)에 대해 개인이 자신의 의견과 신념을 표현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해 가며, 이 과정에서 형성된 건전한 여론을 국가의 정책에 반영하는 장이란 뜻이다. 이러한 공론장은 민주주의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A] 사회가 다원화되고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이 분출되면서 공론장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사람들은 최근 방송 편성이 늘고 있는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이 공론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이 진정한 모습의 공론장을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학자들은 상당수의 프로그램이 다양한 공적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상호 의사소통을 하기보다는 이해 관계에 있는 집단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공론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이 사회적 의제에 대한 공중(公衆)의 관심을 오히려 멀어지게 하고, 특정 입장을 홍보하는 이른바 ‘유사 공론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그들은 비판한다. 그들은 토론 프로그램이 ㉠ 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비슷한 시각에서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이 공중을 수동적인 방관자로 전락시켜 합리적 판단과 비판적 의견을 스스로 형성할 수 없게 한다고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들에 의하면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이 공중에게 자신들이 공적 논의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환상을 갖게 함으로써 수동적인 수용자로 계속 남아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프로그램의 주제 선정, 진행 방법, 방송 시간대와 방송량, 토론자의 특성, 시청자의 참여, 사회자의 성향 등과 같은, ㉡ 방송사가 미리 설정해 놓은 형식과 구성 요소들이 토론의 진행 방향이나 논쟁의 결과를 일정한 방향으로 제한한다고 지적한다. 시청자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토론 프로그램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진지한 성찰을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만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토론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인다.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이 사회적 의제를 논의하는 주요한 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토론 프로그램이 진정한 공론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제기된 비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방송 관계자들의 숙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3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반된 견해를 절충하는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 ②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일반적인 논리를 끌어내고 있다.
- ③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예상되는 반론을 비판함으로써 글쓴이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⑤ 학자들의 견해를 언급하면서 글쓴이의 관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4.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
- ②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 ③ 정보 제공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 ④ 사회 감시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 ⑤ 모든 사안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만들 수 있다

35. 위 글의 맥락을 고려하여 ㉡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1점]

- ① 토론자의 많고 적음이 토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 ② 프로그램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반론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 ③ 시청자 참여의 폭과 정도가 토론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 ④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겠다.
- ⑤ 정해진 순서에 따라 토론을 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논쟁을 기대하기 어렵겠다.

36. [A]에서 설명한 ‘공론장’이 제대로 기능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터넷 신문이 유명인의 사생활에 대해 보도하니까, 누리꾼들에게 빠르게 전달되더라.
- ② 반사회회를 통해 새로운 정책을 홍보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정책을 잘 알게 되더라.
- ③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현안을 다루면서, 소수 전문가와의 대담으로 일관하더라.
- ④ 기존 안과 새로운 안을 설명하는 공청회에서, 주최측이 새로운 안이 돋보이도록 설명하더라.
- ⑤ 시민 토론회에서 합의된 의견에 대해, 정부 기관의 담당자가 여건이 조성되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하더라.

[37~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발명의 이론으로 알려진 트리즈(TRIZ)는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으로서, 구 소련의 겐리히 알츠슐러에 의하여 탄생하였다. 그는 4만 건의 특허를 분석한 결과, 우수한 특허는 모두 모순을 극복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그 후, 알츠슐러는 모순의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계속한 끝에 모순을 기술적 모순과 물리적 모순으로 유형화하여 그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었다.

기술적 모순이란 두 개의 기술적 변수의 값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다. 가령 비행기의 속도를 높이려면 출력이 높은 엔진을 장착해야 한다. 그런데 출력을 높이려면 엔진이 커져야 하고, 그에 따라 엔진은 무거워진다. 결국 출력이 높은 엔진을 장착하면 비행기의 무게가 증가하여 속도는 떨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가벼운 엔진을 장착하면 출력의 한계 때문에 속도를 증가시키기 어렵다.

트리즈에는 이와 같은 기술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40가지 발명의 원리가 있다. 현장에서 부딪히는 기술 문제에 발명의 원리를 하나씩 적용한다면 다양한 해결 방안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비행기의 속도 문제 해결에 ㉠ '복합 재료를 사용하라'는 40번째 발명의 원리가 적용된 예가 있다. 당시, B1 폭격기의 무게를 줄여 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받은 항공기 제작 회사는 금속 재료 대신 에폭시 계열의 플라스틱 복합 재료로 비행기의 날개를 만들어 폭격기 전체 무게의 15%를 줄였으며 비용도 절감하였다. 이렇게 무게가 줄면 동일한 엔진으로도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한편, 물리적 모순이란 하나의 변수가 서로 다른 값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비행기는 이착륙 시에 바퀴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비행 중에는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바퀴가 없어야 하는 모순을 갖는다. 비행 중에도 바퀴가 동체에 그대로 붙어 있는 초창기 비행기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데, 오늘날 초음속 비행기에서 동체의 바퀴는 엄청난 공기 저항을 유발하여 치명적인 사고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비행 중에는 반드시 없어야 한다.

이러한 물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알츠슐러는 '시간에 의한 분리' 등 몇 가지의 원리를 제안하였다. ㉡ 시간에 의한 분리를 설명하기 위해 앞에서 예로 든 비행기 바퀴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우선 이륙하기 위하여 비행기는 바퀴로 ㉢ 활주로로 달린다. 비행기가 완전히 이륙하면 바퀴를 동체에 접어 넣어 비행 중에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 문제는 해결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적 모순과 물리적 모순을 누구나 쉽게 알아내고 쉽게 풀어낼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훈련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기술자가 우선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기술적 모순이다. 그런데 기술적 모순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물리적 모순이 문제

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술적 모순의 해결도 의미가 있지만 바탕에 깔린 물리적 모순을 찾아내서 해결하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 길이다.

37.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문제 상황을 물리적 모순의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 ② 트리즈에는 기술적 모순을 해결하는 데 유용한 여러 개의 원리가 있다.
- ③ 기술적 모순과 물리적 모순은 하나의 문제 상황 속에 공존하는 경우가 많다.
- ④ 물리적 모순은 사물의 상태를 시간차를 두고 변화시킴으로써 해결되기도 한다.
- ⑤ 기술적 모순은 주로 복잡한 기계에서 발생하지만 물리적 모순은 그렇지 않다.

38. [A]를 읽고 <보기>와 같이 추론했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속도의 향상에는 []가 서로 충돌한다.

- ① 엔진 크기라는 변수와 엔진 무게라는 변수
- ② 엔진 출력이라는 변수와 엔진 무게라는 변수
- ③ 엔진 크기라는 변수와 비행기 무게라는 변수
- ④ 엔진 무게라는 변수와 비행기 속도라는 변수
- ⑤ 엔진 출력이라는 변수와 비행기 속도라는 변수

39. ㉠, ㉡을 적용한 결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점]

- | | |
|-------------|-----------|
| ㉠ | ㉡ |
| ① 무게의 감소 | 바퀴의 제거 |
| ② 무게의 감소 | 공기 저항의 감소 |
| ③ 무게의 감소 | 엔진 출력의 향상 |
| ④ 엔진 출력의 향상 | 바퀴의 제거 |
| ⑤ 엔진 출력의 향상 | 공기 저항의 감소 |

40. 위 글을 근거로 하여 만든, 발명 동아리 회원 모집의 홍보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명은 모순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트리즈로 발명왕, 특허왕에 도전하세요.
- ② 발명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트리즈 동아리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 보세요.
- ③ 발명은 모순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과학에 관심 있는 신입생은 특별히 환영합니다.
- ④ 발명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업들의 끝없는 스카웃 행렬, 트리즈 동아리만의 자랑입니다.
- ⑤ 발명은 성공의 열쇠입니다. 전국 대회에서 3년 연속 수상한 트리즈 동아리가 새내기를 기다립니다.

41. ㉠, ㉡의 관계는 <보기>와 같다. 밑줄 친 단어들 ㉠, ㉡와 같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1점]

<보 기>

㉠는 어떤 단어 W의 하위어이고, ㉡는 어떤 단어 W의 의미가 추상화된 것이다.

- ① 동해를 지나가는 배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
- ② 손가락도 까딱하기 싫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 ③ 해바라기를 옮겨 심었다.
성실은 성공의 씨앗이다.
- ④ 어젯밤 악몽에 시달렸어.
내 꿈은 과학자가 되는 거야.
- ⑤ 오늘은 날뽕이 불췌습니다.
나의 바람은 평화롭게 사는 거야.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최근 미국의 한 대학 총장이 “여성은 선천적으로 수학과 과학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발언했다가 거센 반발을 샀다. 이처럼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남녀 사이의 특성 차이를 거론한다. 지능 지수의 평균 점수는 차이가 없지만, 검사 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여성은 언어적 능력에서, 남성은 수학적 능력과 공간 지각 능력에서 우수하다는 증거들을 제시한다. 그리고 지적 인 능력은 아니지만 공격성이라는 특성에서도 성차(性差)가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나) 남녀 간에 성차가 존재한다고 보는 이들은 그 원인을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적 요인으로 설명한다. 유전적 설명에서는 남녀가 몇 가지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환경적 설명에서는 성차가 사회적·교육적 환경 때문에 생긴다고 주장하면서 유전적인 설명 자체에 강하게 반발한다.

(다) 그러나 적어도 평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차에 대한 유전적 설명이 옳은가 환경적 설명이 옳은가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 대신 이런 설명들이 평등이라는 이상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만약 유전적 설명이 그른 것으로 드러난다면 성차에 근거한 차별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유전적 설명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남녀 간의 차별을 옹호하고 평등의 원칙을 거부하는 근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물론 유전적 설명이 옳다고 가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아니다. 유전적 설명이 차별을 정당화한다는 이유로 그 시도 자체에 반대할 경우, 뜻밖에도 유전적 증거들이 확인된다면 아주 당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전적 설명이 옳다고 가정해서 그 의미를 검토해 보는 것이다.

(라) 성차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차이는 오직 평균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남성의 공간 지각 능력의 우월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유전적 가설까지도 여성의 $\frac{1}{4}$ 이 남성의 절반보다 공간 지각 능력이 더 뛰어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주변에서 남성보다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난 여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유전적 설명이 맞든 안 맞든 간에, 너는 여자니까 엔지니어가 될 수 없다든지 너는 남자니까 아기를 돌볼 수 없다든지 하는 단정을 해서는 안 된다.

(마) 우리가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남성’이나 ‘여성’이라고 한 덩어리로 뭉뚱그려서는 안 된다. ㉠ 우리는 그들 각각을 하나의 개별체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 성차가 유전적으로 존재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입증된다고 해도 그렇다. 하물며 단순히 편견에 의존해서 집단 간에 차이를 부여하는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42. 위 글은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 있는가?

- ① 성별에 따른 차이가 과연 존재하는가?
- ② 성별에 따른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가?
- ③ 성별에 따른 차별이 옹호될 수 있는가?
- ④ 성별에 따른 차별의 과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 ⑤ 성별에 따른 차별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43.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인용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② (나): 문제에 대한 대립적인 두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③ (다):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라): 반대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논지를 전환하고 있다.
- ⑤ (마): 주장을 요약하면서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44.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개개인의 인격을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
- ②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 ③ 소속 집단보다는 개인에 따라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
- ④ 사람이 어느 한 집단에만 속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 ⑤ 집단은 개별체가 모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45. <보기>의 문맥을 고려할 때, ㉠~㉣에 적합한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점]

<보 기>

- 이 문제는 아직까지 (㉠)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 어떤 학설이든 (㉡)이 되기 전에는 정설이라고 할 수 없다.
- 이 작품은 어려워서 (㉢)을 듣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 모두 자신이 옳다는 (㉣)을 굽히지 않아서 합의하기가 어렵다.

- ㉠ ㉡ ㉢ ㉣
- ① 거론 - 설명 - 입증 - 주장
 - ② 거론 - 입증 - 설명 - 주장
 - ③ 입증 - 주장 - 설명 - 거론
 - ④ 주장 - 설명 - 거론 - 입증
 - ⑤ 주장 - 입증 - 거론 - 설명

[46~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처를 입은 노루는 설원에 피를 뿌리며 도망쳤다. 사냥꾼과 물이꾼은 눈 위에 방울방울 번진 핏자국을 따라 노루를 쫓았다. 핏자국을 따라가면 어디엔가 노루가 피를 쏟고 쓰러져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나>는 흰 눈을 선연하게 물들이고 있는 핏빛에 가슴을 섬뜩거리며 마지못해 일행을 쫓고 있었다. 총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와 같은 후회가 가슴에서 끝없이 피어올랐다. <나>는 차라리 노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기 전에 산을 내려가 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망설이기만 할 뿐 가슴을 두근거리며 해가 ㉠ 저물 때까지도 일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핏자국은 끝나지 않았고, <나>는 어스름이 내릴 때에야 비로소 일행에서 떨어져 집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나>는 곧 열이 심하게 앓아 누웠기 때문에, 다음날 그들이 산을 세 개나 더 넘어가서 결국 그 노루를 찾아냈다는 이야기는 자리에서 소문으로 들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만으로도 몇 번이고 끔찍스러운 몸서리를 ㉡ 치곤 했다.

서장(序章)은 대략 그런 이야기였다. 물론 내가 처음에 이 서장을 읽은 것은 아니었다. 어느 중간을 읽다가 문득 긴장하여 처음부터 이야기를 다시 읽게 된 것이었지만, 여기에서도 나는 그 총소리 하며 노루의 핏자국이나 눈빛 같은 것들이 묘한 조화 속에 긴장기 어린 분위기를 이루고 있음을 느꼈다. 사실 여기서도 암시하고 있듯이 형의 소설은 전반에 걸쳐서 무거운 긴장과 비정기가 흐르고 있었다.

형의 내력에 대한 관심도 문제였지만, 형의 소설이 나를 더욱 초조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이상하게 나의 그림과 관계가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 때문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사실일 수도 있었다. 헤인과 헤어지고 나서 나는 갑자기 사람의 얼굴이 ㉢ 그리고 싫어졌다. 사실 내가 모든 사물에 앞서 사람의 얼굴을 한번 그리고 싶다는 생각은 막연하게나마 꽤 오래 지녀온 갈망이었다. 그러니까 헤인과 헤어지게 된 것이 그 모든 동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무렵 그런 충동이 새로 워진 것은 사실이었다.

나의 그림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건드릴 수 없이 괴로운 일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화필과 물감을 통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의 10분의 1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나는 인간의 근원에 대해 생각을 좀 더 깊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느낌이 절실했던 점만은 지금도 고백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여 에덴으로부터 그 이후로는 아벨이라든지 카인, 또 그 인간들이 지니고 의미하는 속성들을 즉흥적으로 생각해 보곤 하였다. 그러나 어느 것도 전부를 긍정할 수는 없었다. 단세포 동물처럼 아무 사고도 찾아볼 수 없는 에덴의 두 인간과 창세기적 아벨의 선 개념, 또 신으로부터 영원한 악으로 단죄받은 카인의 질투—그것은 참으로 인간의 향상 의지로서 신을 두렵게 했을는지도 모른다—그 이후로 나타난 수많은 분화, 선과 악의 무한정한 배합 비율……. 그러나 감격으로 나의 화필이 ㉣ 떨리게 하는 얼굴은 없었다. 나는 실상 그 많은 얼굴들 사이를 방황

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헤인 이후 나는 벌써 어떤 얼굴을 강하게 예감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직은 내가 그것과 만날 수 없었을 뿐이었다. 둥그스름한, 그러나 튀어 나갈 듯이 긴장한 선으로 얼굴의 외곽선을 떠 놓고 (그것은 나에게 있어 참 이상한 방법이었다) 나는 며칠 동안 고심만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설이라는 것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이었을 것이다. 형이 불쑥 나의 화실에 나타났다. 그는 낮부터 취해 있었다. 숯계 나의 일은 ㉠ 제쳐 놓고 학생들에게 매달려 있는 나에게 형이 시비조로 말했다.

“흠! 선생님이 그리는 사람은 외롭구나. 교합 작용이 이루어지는 기관은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으니…….”

㉡ 얼굴의 윤곽만 떠 놓은 나의 화폭을 완성된 것에서처럼 형은 무엇을 찾아내려는 듯 요리조리 뜯어보고 있었다. 나는 물끄러미 그 형을 바라보았다.

“그건 아직 시작인걸요.”

“뭘, 보기에 따라서는 다 된 그림일 수도 있는걸…… 하나님의 가장 진실한 아들일지도 몰라.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으로 살아가는. 하지만, 눈과 입과 코…… 귀를 주면…… 달라질 테지—한데, 선생님은 어느 편이지?”

형은 그림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 눈이 무엇을 열심히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밖에서 찾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줄을 알고 있는 눈이었다. 나는 어리둥절해 있기만 했다.

“흥, 나를 무시하는군. 사람의 안팎은 합리적 논리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예술가도 이 의사에게 동의해 줄 테지. 그렇다면 내 얘기도 조금은 맞는 데가 있지 몰라. 어때, 말해 볼까?”

형은 도시 종잡을 수 없는 말을 했다. 무엇인가 열심히라는, 열심히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A] “그 새로 탄생할 인간의 눈은, 그리고 입은 좀더 독이 흐르는 쪽이어야 할 것 같은데…… 희망은—이건 순전히 나의 생각이지만, 선(線)이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 이야.”

이상하게도 형은 나의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 -

46. 위 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두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연관성을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군.
- ② 개인과 사회의 갈등보다는 개인의 내면적 갈등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 읽어야겠군.
- ③ 간결한 문체와 사실적인 묘사로 인물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실감나게 보여 주고 있군.
- ④ 줄표(—)와 줄임표(……)의 활용을 통해 상황에 대한 서술자나 인물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군.
- ⑤ 추상적인 개념어를 사용한 요약적 서술과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한 장면 제시를 모두 활용하고 있군.

47. 위 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시간적인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1점]

<보 기>

ㄱ. 형이 소설을 쓴다.
 ㄴ. 동생이 헤인과 헤어진다.
 ㄷ. 동생이 사람의 얼굴을 그린다.
 ㄹ. 형이 동생의 화실을 방문한다.

- ① ㄱ-ㄴ-ㄷ-ㄹ
- ② ㄱ-ㄴ-ㄹ-ㄷ
- ③ ㄴ-ㄷ-ㄱ-ㄹ
- ④ ㄴ-ㄷ-ㄹ-ㄱ
- ⑤ ㄷ-ㄹ-ㄱ-ㄴ

48. ㉠을 통해서 동생의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형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싶지만, 아직은 형과의 거리를 좁힐 수 없다.
- ② 종교적 깨달음의 감격을 누리고 싶지만, 아직은 인간적인 한계가 크다.
- ③ 순수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할 방법을 아직은 찾지 못하고 있다.
- ④ 그림에 근원적이고 절실한 의미를 담아내고 싶지만, 아직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 ⑤ 그림에 몰두하여 헤인과 이별한 상처를 치유하고 싶지만, 아직은 그럴 수 없다.

49.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생의 예술적 견해를 집약해서 보여 준다.
- ② 형이 동생의 심리 상태를 간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형이 동생의 그림에서 의미 있는 어떤 것을 찾았음을 시사한다.
- ④ 형이 동생의 그림에 채워지기를 원하는 얼굴 모습을 암시한다.
- ⑤ 동생의 삶의 태도가 변화하기를 바라는 형의 의식을 암시한다.

50. 위 글과 <보기>의 ㉠~㉣를 각각 대응시켰을 때, 그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은? [1점]

<보 기>

산을 한 굽이 돌아서자 날이 벌써 ㉠ 저물어 가고 있었다. 아침 해가 앞산 위에 떴나 보다 하면 벌써 뒷산에서는 해가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산골은 날씨 변화가 심해서 땅거미와 더불어 순간적으로 비바람이 ㉡ 치기 시작했다. 친구가 ㉢ 그려 준 약도를 가지고 나는 산 너머에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친구의 집을 찾아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산 중턱을 지나면서 젖은 몸이 ㉣ 떨려 오기 시작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묘한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만사를 ㉤ 제치고 친구를 찾아가는 마음은 산길을 타는 고통을 잊게 했고 한층 발걸음을 가볍게 해 주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51~5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학적 지식은 어떻게 생성될까? 이에 대한 설명은 과학 철학적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경험적 검증 가능성에 의해 과학적 진술의 의미를 평가하는 논리 실증주의적 관점이다. 언어의 회귀에 대한 연구 과정을 통해 과학적 지식의 생성 과정을 논리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과학자들은 언어가 어떻게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지 알고 싶었다. 인디언들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언어가 회귀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과학자들은 이러한 설명이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과학자들은 시각 가설, 지구 자기장 가설, 후각 가설과 같은 설명 방법을 생각해 냈다.

시각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미국 북서부 지역의 두 하천인 이사과와 포크에 도착한 언어들을 각각 잡아 표시하였다. 그런 다음 잡은 언어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은 눈을 가리고 다른 집단은 눈을 가리지 않은 채 두 하천이 만나는 지점보다 하류인 담수에 방류하였다. 실험 결과, 포획된 곳으로 돌아오는 언어의 수는 두 집단 간에 별로 차이가 없었다.

과학자들은 비둘기가 지구 자기장을 이용하여 집을 찾는다는 것에 착안하여, 언어도 지구 자기장을 이용한다는 가설을 생각하였다. 그러나 실험 결과는 지구 자기장 가설을 지지해 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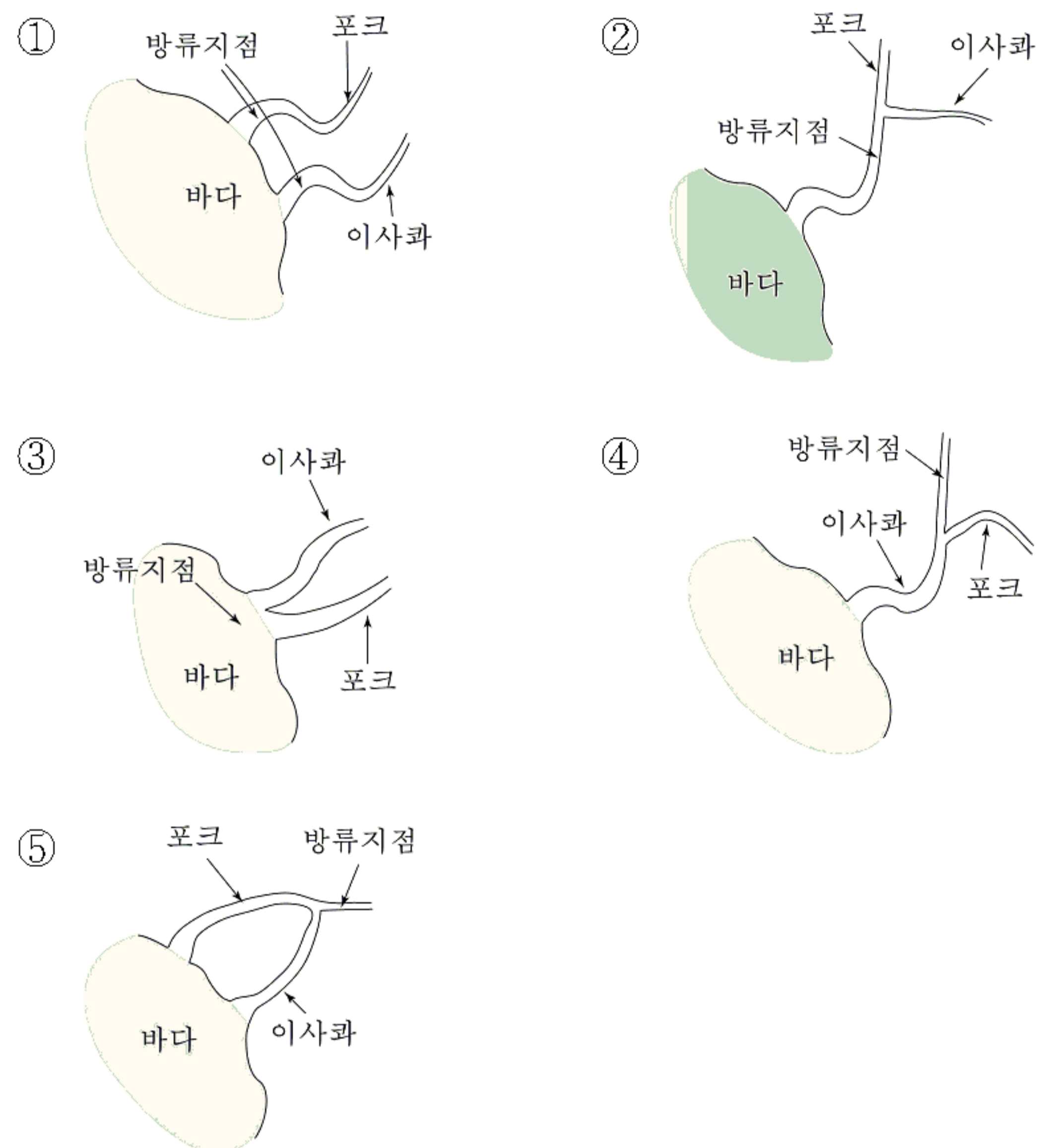
과학자들은 뱀장어 연구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후각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시각 가설을 검증한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실험하였다. 두 하천에서 언어를 잡아, 한 집단은 코마개를 하고 다른 집단은 코마개를 하지 않았다. 이 언어들을 방류한 후, 산란을 위해 담수를 거슬러 오르는 언어들을 처음 포획한 곳에서 재포획하였다. 그들은 코마개의 유무와 처음 포획한 장소에 따라 재포획된 언어들을 분류하였다. 과학자들은 연역된 결과와 이들을 비교한 뒤, 통계적으로 가설이 지지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생성한다. 먼저 ㉠ 현재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의문스러운 현상에 직면한다. 의문은 설명하려는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 현재의 상황과 유사한 사전 지식에 기초하여 잠정적 설명을 창안한다. 그 후, ㉢ 잠정적 설명에 대한 검증 방법을 생각해 낸다. 그리고 ㉣ 자료를 수집하고 ㉤ 이것을 잠정적 설명들로부터 연역된 결과들과 비교한다. 만일 가설이 지지되지 않는다면 이 과정을 순환적으로 반복하며, 새로운 과학적 지식은 이러한 순환적 과정의 결과로 생성된다. 이때 가설은 실험과 관찰에 의해 검증되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검증 가능성을 설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51. 위 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 ① 과학적 지식의 생성 과정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없다.
- ② 배경 지식은 과학적 가설 생성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다.
- ③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목적은 과학적 지식의 생성이다.
- ④ 현상에 대한 과학자들의 의문은 과학적 탐구의 동기를 유발한다.
- ⑤ 과학자들은 가설이 지지될 때까지 새로운 가설을 생성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52. 위 글에서 언어의 회귀 방법에 대한 실험을 수행한 지역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1점]



53. **논리 실증주의자**가 <보기>의 글을 읽고 '○○ 이론'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 이론은 우주와 자연의 궁극적 원리를 밝히려는 이론이다. 다수의 뛰어난 과학자들이 ○○ 이론에 몰두하고 있지만 아직 단 하나의 검증과 가능한 예측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 ① 과학자가 이론으로 주장하였으므로 과학적 이론이다.
- ② 틀렸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므로 비과학적 이론이다.
- ③ 다수의 뛰어난 과학자들이 믿고 있으므로 과학적 이론이다.
- ④ 향후 밝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과학적 이론이다.
- ⑤ 실험과 관찰을 통해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없으므로 비과학적 이론이다.

54. 언어의 회귀에 대한 과학자들의 모든 연구 과정을 녹화한 후, '후각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을 편집한다고 할 때, ㉠~㉤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핵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언어가 회귀하는 이유를 초자연적인 힘으로 설명하는 인디언들의 사고 방식과 문화적 배경에 대한 취재 내용
- ② ㉡: 뱀장어가 매우 낮은 농도의 무기물을 후각으로 탐지한다는 논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후각 가설을 만들었다는 과학자의 설명
- ③ ㉢: 시각 가설을 검증한 방법에서 눈을 가리는 데 착안하여, 언어에게 코마개를 부착하고 같은 장소에서 조사하면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과학자가 설명하는 내용
- ④ ㉣: 과학자들이 실험 계획에 따라 두 하천에서 회귀하는 언어를 잡아 표시하여 분류한 후, 재포획하는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녹화한 내용
- ⑤ ㉤: 과학자가 언어를 재포획하면서 얻은 실험 결과를 예상된 결과와 비교하면서, 실험 결과의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

[55~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이 삼경(三更)인 제
일지춘심(一枝春心)을 자규(子規)야 알라마는
다정(多情)도 병(病)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 이조년, 「다정가(多情歌)」 -

(나) 귀뚜리 저 귀뚜리 어여쁘다 저 귀뚜리
어인 귀뚜리 지는 달 새는 밤에 긴 소리 짧은 소리 절
절(節節)이 슬픈 소리 제 혼자 울어 예어 사창(紗窓) 여원
잠을 ㉠ 살뜰히도 깨우는고야
㉡ 두어라 제 비록 미물(微物)이나 무인 동방(無人洞房)
의 내 뜻 알 이는 저뿐인가 하노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다)
[A] 옛 사람이 높은 선비의 맑은 향기를 그리려 하되, 향기
가 형태 없기로 난(蘭)을 그렸던 것이다. 아리따운 여인
의 빙옥(氷玉) 같은 심정을 그리려 하되, 형태 없으므로
매화(梅花)를 그렸던 것이다. 붓에 먹을 듬뿍 찍어 한 폭
대[竹]를 그리면 늠름한 장부, 불굴의 기개가 서릿발 같
고, 다시 붓을 바꾸어 한 폭을 그리면 소슬(蕭瑟)한 바람
이 상강(湘江)의 냇*을 실어 오는 듯했다. 갈대를 그리면
가을이 오고, 돌을 그리면 고박(古樸)한 음향이 그윽하
니, 신기(神技)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기에 예술인 것
이다.
종이 위에 그린 풀잎에서 어떻게 향기를 맡으며, 먹으
로 그린 들에서 어떻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이것이
심안(心眼)이다. 문심(文心)과 문정(文情)이 통하기 때문
이다. 그러기에 백아(伯牙)가 있고, 또 종자기(鍾子期)*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뜻을 알면 글을 쓰고 글을 읽을 수
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결코 독자(讀者)를 저버리지 않는
다. 글을 잘 읽는 사람 또한 작자(作者)를 저버리지 않는다.
여기에 작자와 독자 사이에 애뜻한 사랑이 맺어진다. 그 사
랑이란 무엇인가. 시대(時代)의 공민(共悶)이요, 사회(社會)
의 공분(共憤)이요, 인생(人生)의 공명(共鳴)인 것이다.

문인(文人)들이 흔히 대단할 것도 없는 신변잡사(身邊
雜事)를 즐겨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생의 편모(片貌)와
생활의 정회(情懷)를 새삼 느꼈기 때문이다.

속악(俗惡)한 시정잡사(市井雜事)도 때로는 꺼리지 않
고 쓰려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인생의 모순과 사회의 부
조리를 여기서 뼈아프게 느꼈기 때문이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의 자연이 아니요 내 프리즘을 통하
여 재생된 자연인 까닭에 새롭고, 자신은 주관적인 자신
이 아니요 응시(凝視)해서 얻은 객관적인 자신일 때 하나
의 인간상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감정은 여과된 감정이라야 아름답고, 사색은 발효된 사
색이라야 정(情)이 서리나니, 여기서 비로소 사소하고 잡
다한 모든 것이 모두 다 글이 되는 것이다.

의지가 강렬한 남자는 과묵한 속에 정열이 넘치고, 사
랑이 깊은 여인은 밤새도록 하소연하던 사연도 만나서는
말이 적으니, 진실하고 깊이 있는 문장이 장황하고 산만
할 수가 없다. 사진의부진(辭盡意不盡)*의 여운이 여기 있
는 것이다.

깊은 못 위에 연꽃과 같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도 바닥
에 찬물과 같은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물 밑의 흙과 같이
그림자 밑에 더 넓은 바닥이 있어 글의 배경을 이룸으로
써 비로소 음미(吟味)에 음미를 거듭할 맛이 나는 것이다.
그러고는 멀수록 맑은 향기가 은은히 퍼지며, 한 송이 뚜
렷한 연꽃이 다시 우아하게 떠오르는 것이다.

나는 이런 글이 쓰고 싶고, 이런 글이 읽고 싶다.
- 윤오영, 「쓰고 싶고 읽고 싶은 글」 -

*상강의 냇: 순 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의 냇.
*백아와 종자기: 자기를 알아주는 참다운 벗의 죽음을 슬퍼한다
는 고사의 주인공들.
*사진의부진: 말은 다 하였으나 말하고 싶은 뜻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음.

5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나)는 화자의 독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 ② (나)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감정을 고조시
키고 있다.
- ③ (나), (다)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④ (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단정적인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다)는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체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56. (가)에 대한 설명 내용 중, 작품에 접근하는 방법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 ① ‘이화’, ‘월백’은 군주에 대한 시인의 마음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 ② ‘이화’, ‘월백’, ‘은한’은 서로 어울려 밝고 환한 이미지를 강화한다.
- ③ ‘삼경’은 시간 배경이 되는 동시에 ‘은한’의 이미지를 도드라지게 한다.
- ④ ‘일지춘심’은 ‘이화’나 그것을 바라보는 화자의 마음을 가리킨다.
- ⑤ ‘다정’은 화자의 대상에 대한 감정이 부단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57. (가)의 ‘자규’와 (나)의 ‘귀뚜리’, 그 어느 것의 시적 기능으로도 볼 수 없는 것은?

- ① 화자의 정서 변화에 촉매 역할을 한다.
- ② 소리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 ③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게 해 준다.
- ④ 화자의 마음을 청자에게 전달하는 구실을 한다.
- ⑤ 작품 내의 상황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개입한다.

58. ㉠과 ㉡에 함축되어 있는 화자의 심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에는 ‘귀뚜리’를 찬미하는 심정이, ㉡에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 ② ㉠에는 ‘귀뚜리’를 연민하는 심정이, ㉡에는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 ③ ㉠에는 ‘귀뚜리’를 야속해 하는 심정이, ㉡에는 자신의 마음을 달래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 ④ ㉠에는 ‘귀뚜리’를 불신하는 심정이, ㉡에는 자신의 슬픔을 억제하려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 ⑤ ㉠에는 ‘귀뚜리’를 동정하는 심정이, ㉡에는 자신의 외로움을 이겨내려는 심정이 드러나 있다.

59. (다)를 읽고 글의 취지에 근거하여 모두 활동을 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같은 책을 읽고 글쓴이가 어떤 생각을 하며 글을 썼을지에 대해 토론한다.
- ② 각자 쓴 글을 함께 읽으면서, 자신이 글로써 드러내고자 한 생각이나 느낌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이야기해 본다.
- ③ 널리 알려진 작품을 쓴 소설가에게 전자 우편을 보내, 자신의 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본다.

- ④ 일상적인 소재를 즐겨 사용하는 시인과의 만남의 시간을 마련하여,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구체화하는지 알아본다.
- ⑤ 문헌 조사를 통해, 옛 문인들이 즐겨 선택한 소재와 오늘날의 작가가 선호하는 소재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60. 다음은 <주상탄금도(舟上彈琴圖)>라는 그림이다. [A]의 관점에 따라 감상한 것은? [1점]



- ① 대나무 가지들이 배를 향해 뻗은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군.
- ② 강과 산과 하늘의 경계를 두지 않은 독특한 필법(筆法)을 구사하고 있군.
- ③ 배 위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장면을 그려 탈속적 정신 세계를 표현하고 있군.
- ④ 인물 뒤로, 가는 선의 폭포와 새 한 마리를 그려 배경을 간략하게 처리하고 있군.
- ⑤ 배와 인물을 중심에 두고 대나무와 폭포를 수직으로 배치하여 안정감을 주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